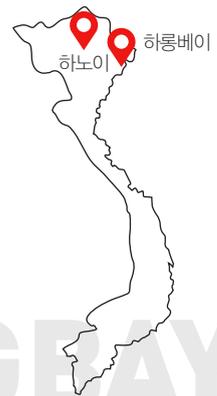




뜨거운 베트남에서 동료들과 함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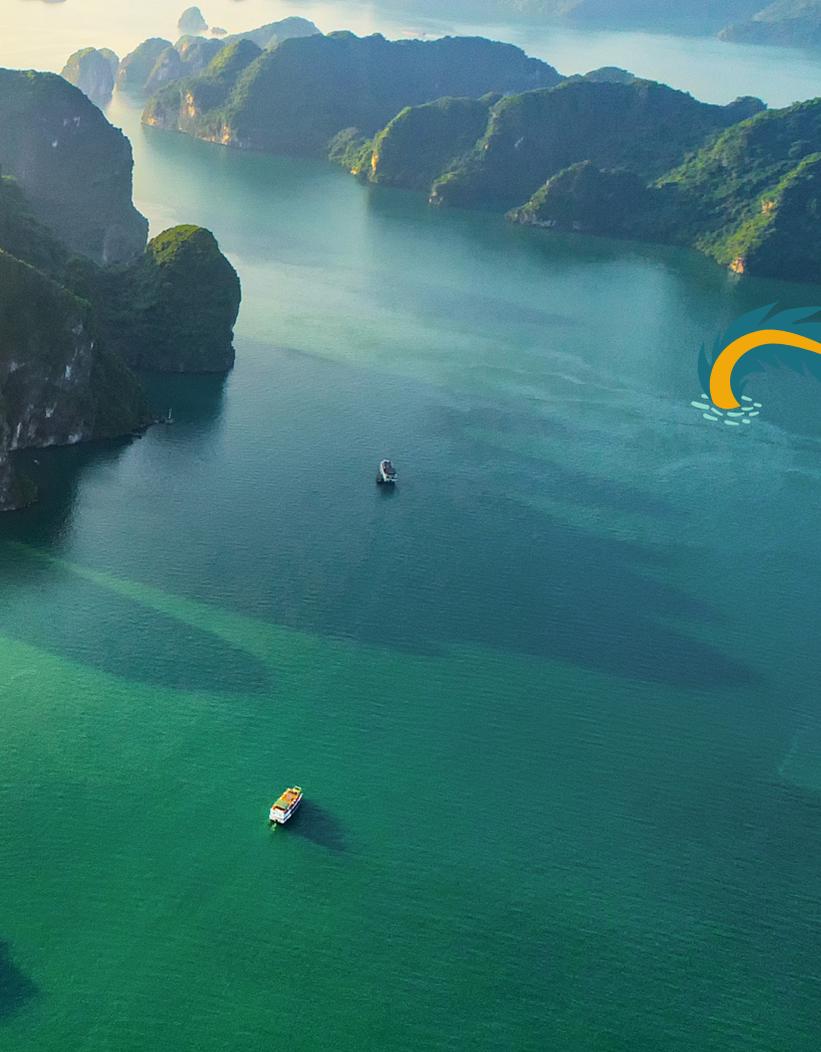
해/외/연/수



VIETNAM HALONG BAY

글 · 사진
전북산업보건센터
환경위생팀 류경원 차장

〈2019년 대한산업보건협회 우수 직원 해외연수〉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진행됐다.
베트남의 찬란한 문화를 느끼며 협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옌뜨 국립공원 호아옌 사원 오르막길



우여곡절 끝에 하노이 행 비행기 탑승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베트남 연수 출국일이다.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새벽 3시에 집을 나섰다. 운전한 지 10여분쯤 지났을 때 아내의 “여권 챙겼지?”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가방과 주머니에는 여권이 보이지 않았다. 재빨리 차를 유턴해 빛의 속도로 집으로 가 여권을 챙겨 다시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출국일의 당황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리 환전해둔 달러와 동(베트남 현지화폐)을 두고 온 것이었다. 속이 쓰렸지만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환전을 다시 한 후 협회 직원들과 비행기에 탑승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후회 없이 3박 4일을 잘 보내겠

노라 다짐을 한 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공항을 나오자 베트남의 고온 다습한 열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이국적인 풍경을 보며 버스에 몸을 실었고 첫 여행지인 ‘옌뜨 국립공원 호아옌 사원’으로 향했다. 사원을 둘러보며 시원한 맥주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접했다. 특히 사원 관광 중 마셨던 망고 주스는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사원 관광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해 저녁식사를 하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이야기는 곧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에 대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왜 이들이 2019년 우수 직원 해외연수에 오게 됐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 01__ 엔프 국립공원 호아옌 사원 안에서 단체사진
- 02__ 무엥탄 하롱호텔 수영장
- 03__ 하롱베이 가는 배안 음식들
- 04__ 하롱베이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향루원으로



베트남의 이색 풍경과 문화에 큰 감동

둘째 날 아침, 가이드와 버스를 기다리면서 전날에는 볼 수 없었던 호화로운 호텔 전경을 감상했다. 호텔의 멋진 모습을 바라보며 조만간 가족들과 다시 꼭 오리라 다짐한 후 하롱베이로 향했다. 하롱베이에서 탄 배 위에서 ‘승숫동굴의 전설’을 들으며 즐겼던 만찬은 덥고 습한 날씨를 잊을 만큼 맛있었다. 이후 돌아온 선착장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길은 직원 모두가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받았던 마사지처럼 시원한 맥주에 오삼 불고기를 곁들이며 둘째 날을 마무리했다.

셋째 날,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밤을 맞았다. 베트남의 독립영웅인 호치민의 일대기를 전시한 ‘호치민 박물관’이 세 번째 여행지였다. 호치민 박물관 관람 후 짧은 쇼핑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에 베트남 전통 ‘탕롱수상인형극’을 보러갔다. 인형극의 커다란 몸짓과 장대한 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을 만큼 감동적이었다. 멋진 공연을 감상한 후 여운을 그대로 간직한 채 숙소로 돌아오니 치킨과 피자가 준비돼 있었다. 3일간 함께한 직원, 가이드 분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05__ 바딘광장 앞에서
06__ 해외연수를 마무리하며
노이바이 국제공항 앞에서



소중한 추억 함께 만든 직원들에게 감사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호텔 조식을 먹고 노이바이 공항으로 향했다. 여행은 늘 그렇듯 익숙해지려고 하면 마무리해야만 한다. 공항에 도착하니 3일 전 출발의 설렘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2019년 대한산업보건협회 우수 직원 해외연수〉는 늘 생활하던 곳이 아닌 다른 기후와 문화가 있는 낯

선 땅에서 진행됐다. 같은 목표를 가진 협회 직원들이 낯선 곳에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일은 동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마음의 활력을 선사했던 좋은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3박 4일간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베트남 연수를 함께해준 직원 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